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58호 현대불교

29

2011년 10월 19일(음 9월 23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나를 이끌어가는 나 자체를 똑바로 보라

여러 큰스님,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불교라 하는 그 자체가 개별적으로 어디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이면서도 모든 것이 한데 귀결돼서 한 주먹에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나 보이는 세상이 전부, 일체가 다 같이 통하고 말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교(敎)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란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교든 기독교든 알라신교든 힌두교든 어느 교를 막론해 놓고, 거지든 부자든 풀 한 포기든 모두 생명이 있고 또 근원이 있어서, 그제 불이니만큼 불교 안에 모든 종교가, 이름이 거기에 포함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종교 저 종교 따지면서, 내 집 내 집을 따지면서, 내 생명 내 생명을 따지면서 이렇게 가만히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49년을 설해 주시고 길을 인도하실 때 그 뜻을 바로 알려 주시고 “한 마디도 한 예가 없고 한 걸음도 걸은 예가 없고, 한 말 한 생각도 한 예가 없다.” 하신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잘 생각을 해서, 나 하나만 독불장군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체 만물 일체 생명이 다 같이 공생·공용·공체·공식화 하고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명백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우주의, 아니 삼천대천세계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에 작결이 돼 있고, 세상만사가 돌아가는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에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 가설이 돼 있는 자체는 바로 우리가, 너 나가 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둘이 아님을 생각하게 되고, 수억겁 동안 미생물에서부터 쫓고 쫓기고 진화되고 화하고 나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지죠. 그런데 사람 개개인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져 있는가? 직결돼 있고 가설돼 있는 이 몸에 말씀입니다. 나 하나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떤 것도 무효입니다. 어제 내일 오늘도 없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상대가 생기고 인연이 생기고 인과가 생기고 윤회가 생기고, 유전성이니 업보성이니 그 모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발견할 것인가. 나에게서 나를 이끌어 가는, 바로 수억겁 전부터 끌고 왔으며 지금까지도 진화시켜 가면서 화해서 돌아

가게 하는 나의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딴 데다가 상대를 두고서 부처님을 찾는다거나 상대를 두고서 갖은 이름을 다 찾으면서 기도를 한다면 부처님의 마음은 한 치도 꺾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꺾어보고 일체 중생의 마음을 꺾어보고 일체 만물만생의 마음을 서로 돌이키게 꺾어보려면 내 집부터 전화를 놔야 됩니다. 내 집부터 전화를 놓지 않는다면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체를, 이끌어 가는 나를 똑바로 보라 이겁니다. 나 자체가 바로 일체 만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일체제물을 다 한 데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삼천대천세계를 다 집어넣는 데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다

꺼낸다 하더라도 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나 자신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내 마음과 내 육체, 이 자체가 어디로부터 와서 이렇게 내가 끌려다니고 있나 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 자체가 참선인 것입니다. 좌선을 한다, 입선을 한다, 행선을 한다, 와선을 한다 하는 것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로 나 자신 주인에 맡겨 놓고 돌아간다면, 그리고 지켜보고 실험하고 체험한다면 그것이 참선인 것입니다. 참선이라는 것도 그러하지마는 이 세상의 마음들을 모두 내 놓아도 해도 하나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없는 것을 기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붕도 없고 벽도 없는데 문을 찾아서 부처님 도리를

배우려고 한다면 그거는 천만 리 먼 것입니다. 천천백 공안도 이 세상 돌아가는 데 있고 천당 지옥도 이 세상 돌아가는 데 있고, 부처님 법도 이 세상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생들이 병이 나아 야 내 병이 낫겠다고 한 유마힐 거사의 그 대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몸속에 있는 수십억의 생명과 의식과 모습이 바로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 수십억의 의식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현재 수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면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를 알 수 있으며, 현재에 사는 것을 지켜본다면 자기가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몸뚱이 속의 염식, 악업 선업이 뭉쳐서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오신통이 오신통이 아니라. 네 몸속의 중생들부터 제도하고 네 몸속에서 벗어나야 네 몸뚱이를 굴릴 수 있으며 이 세상 통을 굴릴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느 수좌가 동짓날 팔죽을 쑤는데 그 팔죽 솥에서 팔죽 방울이 끊어서 솥술 나오니까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했다는 말은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이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팔죽 솥이라면 수없이 일어나는 그 번뇌 염식이 바로 그 솥에서 나오는 죽 방울이 아니겠습니까? 제 솥에서 제 죽 방울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솥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을 했다 하면 범이고, 몸을 움직여 봤다 하면 화신이고, 가만히 있으면 부처니 셋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몸속에 있는 모든 염식들이 수없이, 쫓게도 나오고 언짢게도 나오고 병고도 나오고 애고도 나오고 화도 일으키고,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자동 컴퓨터죠. 속명통이란 자동 컴퓨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모두 오신통은 가지고 있으나 오신통도 도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신통 속에서 벗어나야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을 줄 수 있고 자기도 목마르면 물 한 컵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름해서 누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을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고, 저 스님은 잘하고 저 스님은 못하고, 또는 저 사람은 잘하고 저 사람은 못하고, 저 사람으로 인해 망했고... 그러면서 시비를 합니다. 한 가정에 살면서도 “저놈 저렇게 하다가는 강퍹이나 차지.” 하고 자식 욕을 하거나, 부부지간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 법이며 여러분의 법이 부처님 법이지 여러분의 법을 버리고 부처님의 법이 어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심통이다, 천이통이다, 신족통이다, 천안통이다, 속명통이다 하는 것도 모두 여러분

그림 · 최주현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는 다른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문 중에서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마음이 좌선이 돼야지 몸뚱이가 좌선이 돼서 됩니까

29면에서 계속

이 가지고 계산 겁니다.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분하니까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발을 붙이고 다니고 통신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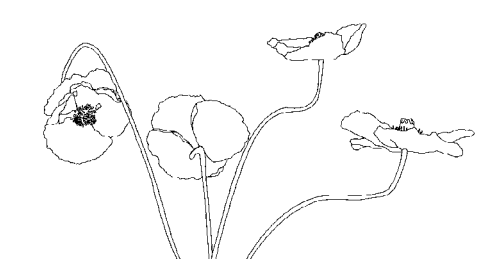
그런데 고기들이 물속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지금 공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오선이 있고 오심이 있어서 만법의 기준을 한데 합쳐서 오르고 내리는 데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고기들도 물이 없으면 죽듯이 우리 인간도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바람이나 지수화풍에게 감사할 줄을 모르고 허무하게만 생각한다면 이겁니다. 내 몸뚱이도 지수화풍이라, 그래서 허망하게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또 허망치 않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모두가 귀중하게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대로 참다운 부처님 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다 깨쳤다면 하더라도 바로 한 부처입니다. 부처님은 아니 되시는 게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보!" 하면 금방 남편이 돼서 말도 행동도 다 그렇게 나가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돼서 그렇게 나가듯이 부처님 마음도, 명이 짧아서 애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칠성으로 응해 주시고, 몸이 아파서 애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약사로 응해 주시고, 좋은 데로 못 가서 애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장으로 응해 주시고, 물에 빠져서 허덕이면 용신으로 화해 주시고, 길을 가다가 원하면 지신으로 응해 주시고, 어떠한 병고와 있고 가난해서 염원을 하면 바로 관세음으로 응해 주시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응해 주십니다. 동방에는 아축으로 이름을 해 놓으시고, 서방에는 아미타로 이름을 해 놓으시고, 사바세계는 관세음으로 이름을 해 놓으시고, 지전국에는 지장으로 이름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기 한마음,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그렇게 이름 지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부처는 하나지 둘이 아니라고 했던 거고 부처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삼재가 들어서 안 되느니, 이사를 가야 할 텐데 손이 있어서 못 가느니, 조상을 모시는데 뭐가 잘못돼서 안 되느니, 모두 이러는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관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탁 때 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날 이사를 가면 그게 좋은 날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서 지금 살아가기도 급급해 죽겠는데 종교마저도 그렇게 거부해서야 어떻게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게 다 종교입니다. 종교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

러분이 안방에 들어가시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안방에 부처가 계시고 변소에 가도 자기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계십니다. 법당에 가시면 항상 그 형상은 내 형상이요, 그 마음은 내 마음이고, 그 생명은 내 생명이니 돌이 아닌, 그 진실한 마음으로 일 배를 올려도 일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배를 올려도 일 배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이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으니, 마음이란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광대무변해서 모두 알 길이 없겠지요. 천당 지옥이다 하는 것도 말로만 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본다면 실감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인간세계에 나와서 개같이 살았더라면, 그다음 생애 개로 화해서 개 모습을, 무명을 쓰고 나왔죠. 개 모습으로 하고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개로 대접을 해 주더라 이겁니다. 개 모습이니까 개 노릇을 해야 하고 개 대접을 받아야죠? 자기가 아무리 사람의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은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전세계 중천세계 하천세계라고 해 놓은 것은 모든 천차만별의 사생의



그 뜻이 그냥 같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세계라는 것은 체로 거르듯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거르듯이 이렇게 걸러져서 위로 차원이 높아지느냐 아래로 떨어지느냐의 교차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솟출 나오는 것은 바로 자동적인 마음의 컴퓨터에 그렇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되입력을 한다면, 모든 걸 거기가 방화착 하고 놓는다면, 그리고 거기서만이 이룰 수 있고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다.' 하도 다 거기가 놓는다면 바로 되 입력이 돼서 앞서 입력된 것이 몰락 무너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만 알고 혼자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거나 나쁜 일을 하고 또 속으로 남을 원망하고 욕을 하고 이랬다 해서 혼자만 아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주와 세상과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다고, 우주간 법계에 가설이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을 우주간 법계에서 다 알고 있으니 어찌 감추우리까?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세간에서 그런 말들을 하죠? 태고가 참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실전을 못합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못하는 원인은 실감이 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실전에 옮겨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실천으로 돌아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업보성이나 세균성이나 영계성이나 윤회성, 이 모두에 이끌려서 여러분은 고통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죠. 자기가 길을 걸어다 갔던지 그런 길을 짚고 일어나야지 허공을 허우적거리서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상대를 두고서 기도를 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중심으로 돌려놓는다면 만 개가 있어도 하나요, 또 하나가 있어도 만 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 놓은 대로 일일이 각각 찾고 돌아다니니 자기 마음은 언제 보겠습니까? 보는 대로 자기 아님이 없고 이 세상 만물만생이 자기 아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우리 인간이 되기까지, 구름이 모였다가

각을 일으켰다 하면 문수요 한생각을 일으켜서 움직여줬다 하면 바로 보현입니다.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름이 좀 많습니까. 가정에서 금방 형이 됐다 금방 아버지가 됐다, 금방 남편이 됐다 금방 자식이 됐다, 금방 사위가 됐다 금방 친구가 됐다 하고 있고, 또 사회에서의 이름, 안에서의 이름, 그 이름이 좀 많습니까. 지네가 그렇게 많은 다리를 가지고도 걸리지 않고 여여하게 걸어가듯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부처님 법이 뭐가 다른지? 여러분이 부처님 법을 그렇게 등한시하고 "아이고, 부처님 법을 어떻게 찾아?" 하든가 또 "난 기독교를 믿으니까 뭐, 불교 그까짓 따구니 소굴." 이렇게 밀쳐 버리고 마는데 그런 거는 정말이지 절대적으로 100%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교란, 불법이란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것을 어떻게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부처라고 했

아닙니다. 만약에 법당에 가야만 부처님 법이었다고 한다면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구는 쉼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그 시공이 없는 진리를 진리 속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에 포함돼서 내가 가고 있는데도 앉았다가 일어났다고 하거나 잠시잠깐 했다고 한다가나 '법당에 가서 이렇게 하고 오니까 참 마음이 편하더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법당에 갈 때만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어졌다가도 도로 끊어지니까 도루묵이죠, 도루묵. 이어졌다가도 그냥 순식간에 끊어져 버리니까 갖던 것이 무효가 된 거죠.

앞아서 좌선을 해도, 좌선을 한다 안 한다는 이유가 붙으면 좌선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좌선이 돼야지 몸뚱이가 좌선이 돼서 되겠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마음이 찰나찰나 돌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잠재해 있듯이, 어디서 뇌성벽력이 들어온다, 하늘이 깨져 무너진다, 땅을 굽는다, 생명이 죽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움직여지지 않는 마음을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거를 알라 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평등공법으로 볼 수 있고 활공공법으로 볼 수 있고 수레공법으로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또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식들께서 "나는 생불도 찾지 않는다 하리!" 이렇게 말씀하셨던 원인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알아 뒤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은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외국에 가 보니까 부부가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가정이 많아요. 전제가 다 그래요. 한국에서도 그런 가정이 많죠? 가난해서도 그렇지만은 돈이 있어도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백일기도를 드리러 올라간다면서 목욕재계하고 음식도 모두 가리고 남편도 자식들도 굶주리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의 잠자리까지도 거부하면서, 아무리 백 일 아니라 천 일을 올라가서 기도를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남편은 배가 고퍼서 주전부리를 하게 되고 애들은 이따이 되고, 이렇게 되면 가정 파괴가 오고...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모두가 다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부처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2년 11월 1일 국내자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 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나 자신부터 알아야 합니다.

참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로 나 자신 주인에게 맡겨놓고 돌아간다면, 그리고 지켜보고 실험하고 체험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선인 것입니다.

헤어지고 또 딴 구름하고 모이고 이러듯이, 모두 돌고 돌아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짐승이든 새든 독사든 사람이든 무엇이 거꾸꾸 돌았기 때문입니다. 돌면서 무엇이 거꾸꾸 해 온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끌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되돌려 놓고 거기를 지켜보는 관을 하신 말입니다. 관! 지켜보는 관이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을 찾을 때 저 높이 올려놓고 찾거나, 주인공을 찾는다 하더라도 돌로 보고 '주인공, 나에게 이런 걸 좀 해 주시오.' 한다면 벌써 이견 어긋나는 겁니다. '주인공만이 할 수 있어! 안되는 것도 주인공이 한 거니까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주인공이!' 하고 할 수 있다 없다를 다 그냥 거기가 되돌려 놓고 지켜보고 실험하고 체험하는 그 자체가 바로 참선인 것입니다.

부처가 만 개가 있을 줄 어떻게 봅니까. 만 개도 하나요 하나도 만 개니, 칠성이다 독성이야 산신이다 약사다 지장이다 하고 따로따로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왜냐? 부처님의 한생각이 문수도 되고 보현도 되고 그러니까요. 한생

습니다. 즉,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건가요, 남편 노릇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건가요. 또 자식 노릇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거든 했다고 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또 풀 한 포기, 벌레 하나라도 아니 되시는 게 없습니다. 돼지를 건지시려면 돼지 소굴로 들어가서 응해 주시고, 독사가 염원하면 독사로 화하시고, 찰나찰나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는데 어떤 거 되실 때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지오. 그렇기 때문에 진리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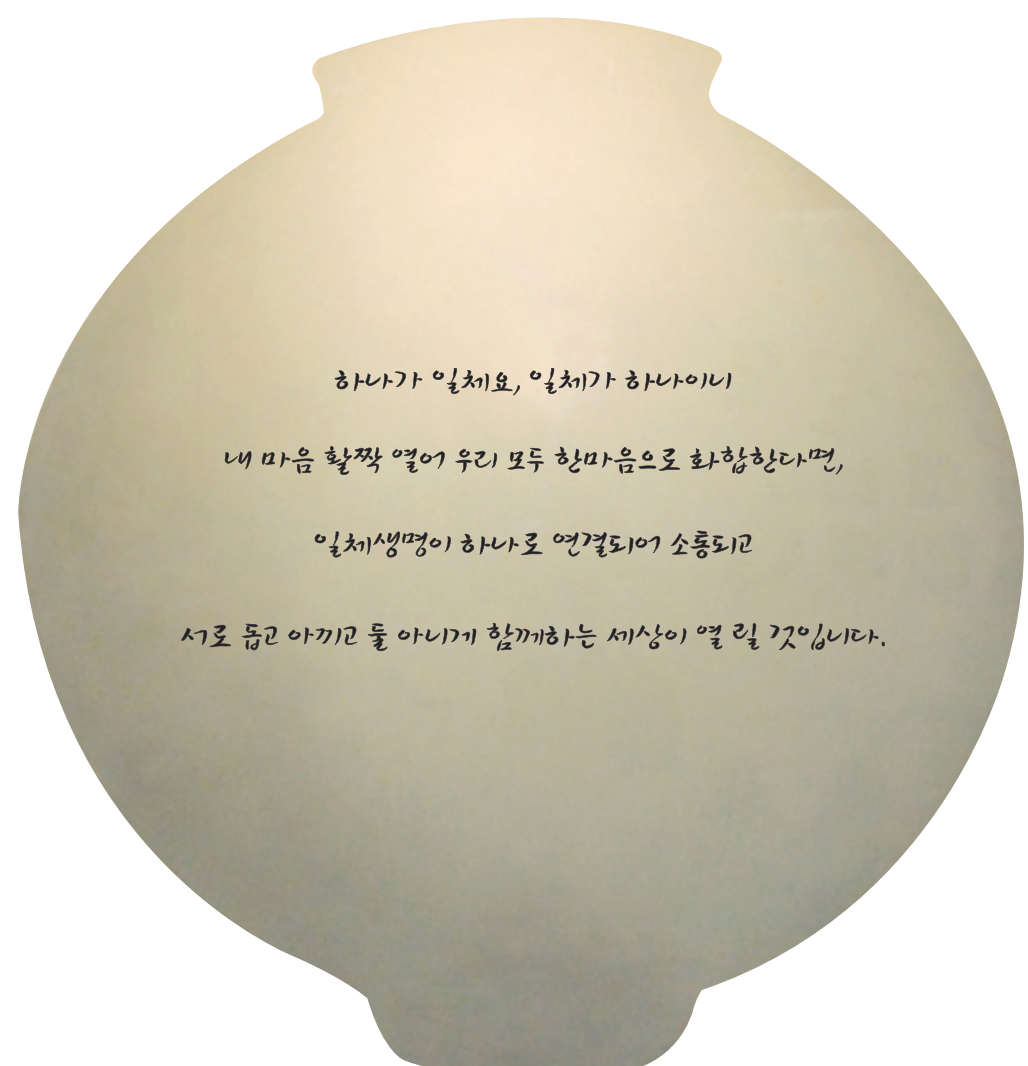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력이 들어와 있는데도 전기줄과 전깃줄이,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치지 않는다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치니까 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불을 누가 켜을까요? 이쪽 줄이 켜을까요, 저쪽 줄이 켜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스님한테 덕을 봤든가 좋은 법을 내가 배웠다 하더라도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전깃줄이 했다 할 수도 없고 저 전깃줄이 했다 할 수도 없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법이 법당에 가서만 있는 게

Hanmaum Choir Festival

한마음 음악제

- 주 제 일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 일 시 1회 공연 : 2011.11.12(토) 17:00 / 2회 공연 : 2011.11.13(일) 15:00 / 3회 공연 : 2011.11.13(일) 19:00
- 장 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공연 내용 제 1부 (선법가 공연)
 - 한마음선원 스님
 -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
 - 한마음선원 어린이합창단
 - 한마음선원 해외지원합창단
- 제 2부 (화합대제전/재능기부 축하공연)
 - 황병기(가야금 명인)
 - 이춘혜(소프라노), 이승목(테너)
 - 전제덕(하모니카 연주자)
 - 국립국악관현악단, 이화첼리,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니르바나오케스트라
- 주최·주관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문의 031-470-3100
- 후 원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서울특별시
- 본 공연의 수익금 전액은 아름다운 동행(사)더프라이스 지정기탁과 (사)뷰티플마인드의 나눔사업에 기부됩니다.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농협 351-0290-8461-33 / 국민 214901-04-197245 [예금주 한마음선원]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하나이니

내 마음 활짝 열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화합한다면,

일체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소통되고

서로 돕고 아끼고 돌 아끼게 할꺼하는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위와 아래가 따로 만들어지지만, 불가마 속에서 하나가 되는 달항아리. 자신을 텅 비워서 모두를 포용합니다. 나와 나, 남과 북, 나아가 세계를 잇고 싶은 소망을 담았습니다. 작가 권익중